

##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5년 6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1.2% 증가, 전월대비는 0.5% 증가

- 2015년 6월 생산은 숙박·음식점, 출판·영상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업, 제조업, 공공행정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10.3%), 석유정제(15.4%) 등에서 증가하였고 전자부품(-3.0%), 통신·방송장비(-18.9%)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함(전월대비 2.2%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9.9%),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6.3%)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10.8%), 부동산·임대(9.3%)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함(전월대비 1.7% 감소).
- 2015년 6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0.8%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1.9% 증가함.
  -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12.1%) 등에서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7.4%)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함(전월대비 3.7% 감소).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1.9% 증가함(전월대비 3.8%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 실적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0.5%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일반토목, 주택 등에서 수주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45.5% 증가함.

- 2015년 6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하였고,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 상승함.

◆ 2015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0.7% 상승(생활물가지수 0.1% 감소)

- 2015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04(2010년=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2%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도 0.7%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주류·담배(50.5%), 음식·숙박(2.4%), 교육(1.7%), 의류·신발(1.0%) 등에서 상승한 반면, 교통(-6.3)과 주택·수도·전기·연료(-1.7%) 등에서는 하락함.
  - 2015년 7월 생활물가지수는 107.78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함(전월대비로는 보합).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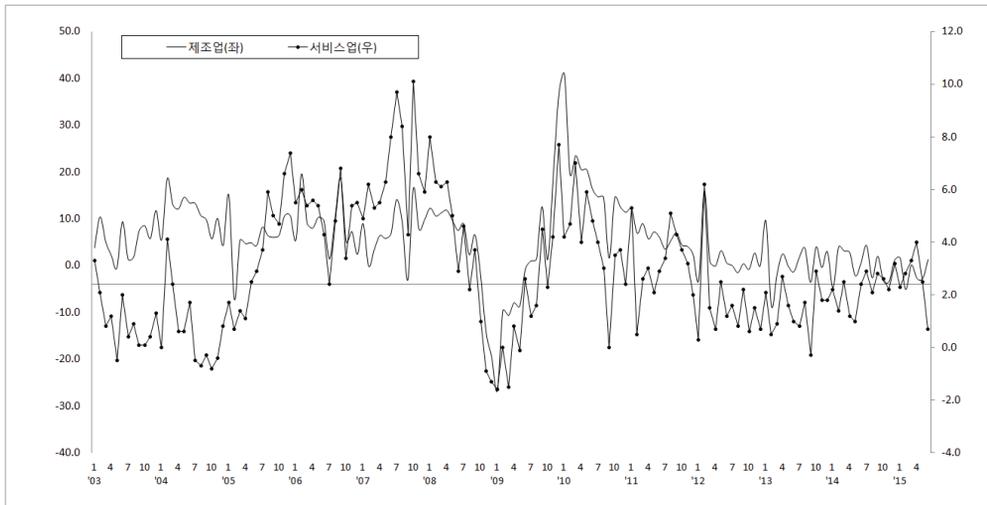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	6월	1/4	2/4p	6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	-1.7	-0.7	0.0	-2.0	0.0	0.6	-0.9	-1.5	1.2(2.3)
	제조업 생산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	-1.8	-0.8	0.0	-2.2	-0.1	0.5	-1.0	-1.5	1.3(2.2)
	출하	11.9	7.2	4.9	3.5	6.7	3.3	1.5	0.4	-0.1	1.3	-2.3	-1.0	-0.2	-1.3	-0.2	-0.7	-0.7	-1.3	0.9(0.8)
	내수	6.8	3.8	2.7	0.2	3.3	0.3	-1.3	-1.5	-1.9	-1.1	-2.8	-1.2	-0.4	-2.6	0.2	0.4	-0.7	-0.2	1.9(0.2)
	수출	18.1	11.6	7.7	7.2	10.8	6.7	4.9	2.3	1.8	3.9	-1.7	-0.6	0.1	0.3	-0.6	-2.1	-0.6	-2.5	-0.2(1.8)
	서비스업 생산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0.8	1.7	0.7	2.7	2.2	2.4	2.8	2.4	0.7(-1.7)
소비	소비재 판매	5.4	5.7	4.7	1.9	4.3	2.0	1.0	1.7	2.5	1.8	0.2	1.1	0.7	1.9	1.6	1.2	1.6	3.0	0.8(-3.7)
투자	설비투자	5.4	4.8	-3.1	-4.7	0.7	9.4	-0.4	-7.1	-5.6	-1.1	-15.4	-10.0	-4.7	5.1	4.6	2.3	8.4	5.1	11.9(3.8)
물가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1.1	1.6	1.4	1.0	1.3	1.4	0.6	0.5	0.7(0.6)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5년 7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 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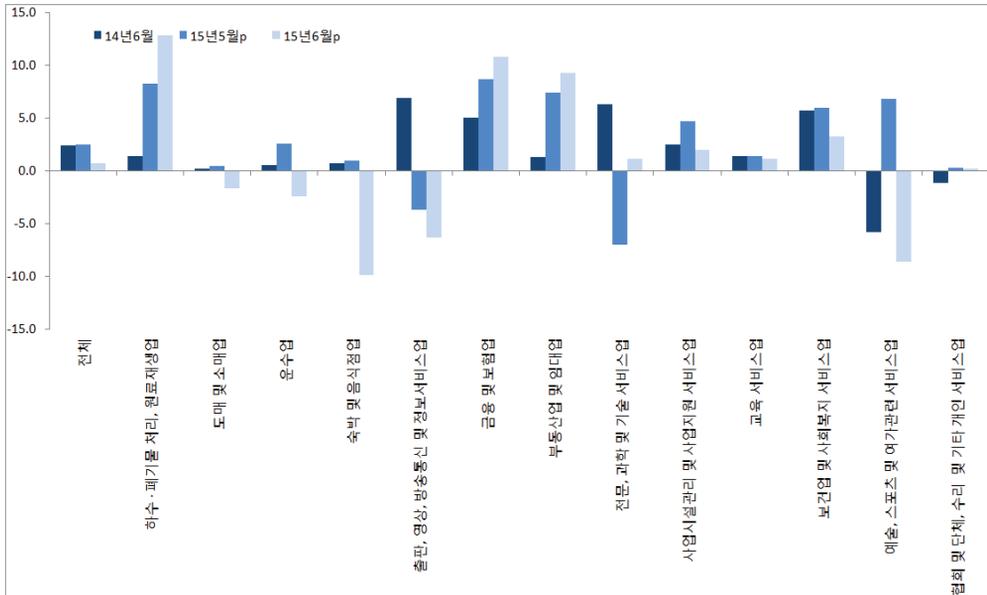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2015년 5월, 6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5. 8), 『2015년 6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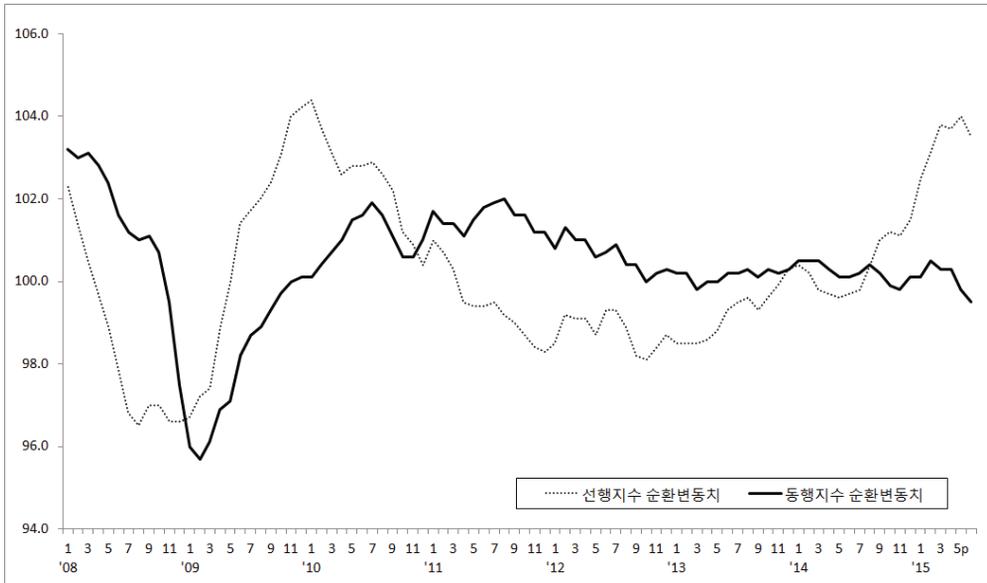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 ◆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정체, 취업자 증가세 둔화

- 2015년 7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7,30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3천 명(1.5%) 증가함.
  -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736천 명으로 189천 명(1.2%) 증가하였고, 여성은 11,568천 명으로 224천 명(2.0%) 증가하였음.
- 2015년 7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3.4%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함.
  - － 성별로 보면, 남성(74.7%)은 전년동월과 동일하고, 여성(52.6%)은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음(그림 4 좌측 참조).
- 2015년 7월 중 고용률은 61.1%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 － 남성의 고용률은 71.8%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50.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음(그림 4 우측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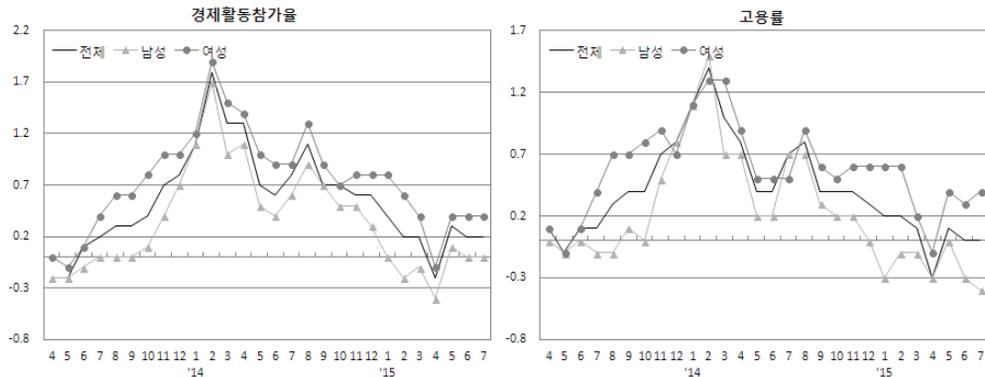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경제활동인구	25,945 ( 3.4)	26,767 ( 2.4)	26,810 ( 2.4)	26,891 ( 2.2)	26,622 ( 2.1)	26,356 ( 1.6)	27,140 ( 1.4)	27,255 ( 1.6)	27,303 ( 1.5)
참가율	61.3	63.1	63.0	63.2	62.4	61.5	63.2	63.3	63.4
취업자	24,913 ( 3.0)	25,790 ( 1.8)	25,927 ( 2.0)	25,979 ( 2.0)	25,767 ( 1.7)	25,267 ( 1.4)	26,098 ( 1.2)	26,205 ( 1.3)	26,305 ( 1.3)
고용률	58.8	60.8	60.9	61.1	60.4	59.0	60.7	60.9	61.1
실업자	1,031	977	884	912	854	1,089	1,042	1,050	998
실업률	4.0	3.7	3.3	3.4	3.2	4.1	3.8	3.9	3.7
비경제활동인구	16,397 (-2.6)	15,685 ( -1.4)	15,760 (-1.4)	15,637 (-1.3)	16,066 (-0.6)	16,469 ( 0.4)	15,835 ( 1.0)	15,770 ( 0.7)	15,751 ( 0.7)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5. 8), 『2015년 7월 고용동향』.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단위: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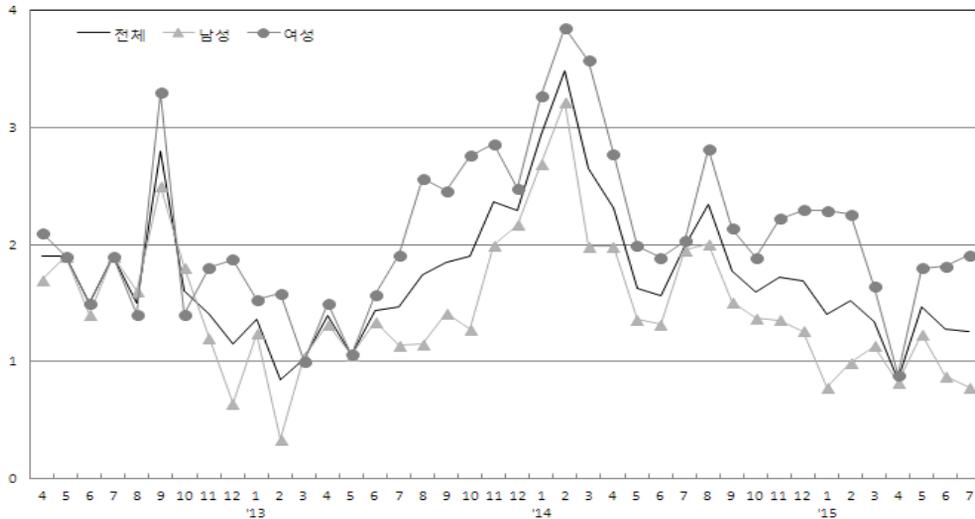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2015년 7월 중 취업자는 26,30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6천 명(1.3%) 증가함.
  -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5,13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7천 명(0.8%)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1,16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9천 명(1.9%) 증가하였음 (그림 5 참조).
- 2015년 7월 중 실업자는 99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6천 명(9.5%) 증가,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함.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남성 실업자는 59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1천 명(13.4%)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40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천 명(4.0%)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8%, 여성이 3.5%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4%p, 0.1%p 상승
- 2015년 7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75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4천 명(0.7%)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4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8천 명(1.7%)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40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천 명(0.2%)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8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천 명 증가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47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2천 명(6.7%) 증가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020천 명으로 137천 명(-3.3%) 감소하였음.

◆ **농림어업 제외 전 산업에서 취업자 증가**

- 2015년 7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70천 명, 3.9%), 건설업(25천 명, 1.4%),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86천 명, 1.4%),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118천 명, 1.3%), 전기·운수·통신·금융업(19천 명, 0.6%)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91천 명, -5.7%)에서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전 산업	24,913 ( 3.0)	25,790 ( 1.8)	25,927 ( 2.0)	25,979 ( 2.0)	25,767 ( 1.7)	25,267 ( 1.4)	26,098 ( 1.2)	26,205 ( 1.3)	26,305 ( 1.3)
농림어업	1,179 ( 1.0)	1,631 (-3.2)	1,603 (-7.0)	1,604 (-6.4)	1,395 (-7.2)	1,092 (-7.3)	1,505 (-7.7)	1,552 (-7.3)	1,513 (-5.7)
제조업	4,279 ( 3.0)	4,319 ( 3.3)	4,346 ( 4.7)	4,358 ( 4.6)	4,374 ( 3.0)	4,418 ( 3.2)	4,466 ( 3.4)	4,478 ( 3.1)	4,528 ( 3.9)
건설업	1,683 ( 1.6)	1,813 ( 0.6)	1,833 ( 3.2)	1,849 ( 3.2)	1,854 ( 4.0)	1,756 ( 4.3)	1,857 ( 2.5)	1,870 ( 1.5)	1,874 ( 1.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837 ( 5.5)	5,798 ( 3.8)	5,930 ( 4.9)	5,927 ( 4.9)	5,992 ( 4.2)	5,984 ( 2.5)	5,927 ( 2.2)	5,944 ( 2.4)	6,013 ( 1.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865 ( 2.4)	9,147 ( 1.9)	9,176 ( 2.1)	9,180 ( 1.9)	9,128 ( 1.5)	8,978 ( 1.3)	9,268 ( 1.3)	9,286 ( 1.7)	9,298 ( 1.3)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3,055 ( 1.9)	3,067 (-0.5)	3,026 (-2.5)	3,047 (-2.4)	3,015 (-1.3)	3,029 (-0.9)	3,063 (-0.1)	3,060 (-0.1)	3,066 ( 0.6)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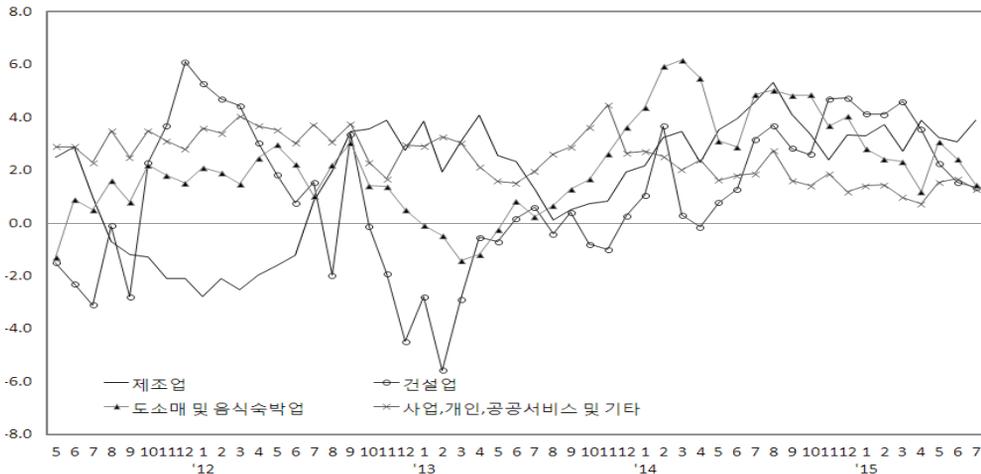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5.8), 『2015년 7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

- 2015년 7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88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1천 명(-2.2%) 감소, 임금근로자는 19,42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8천 명(2.5%)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627천 명으로 462천 명(3.8%), 일용근로자는 1,608천 명으로 47천 명(3.0%)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188천 명으로 31천 명(-0.6%) 감소하였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고용주 포함)는 5,656천 명으로 76천 명(-1.3%) 감소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226천 명으로 75천 명(-5.8%) 감소하였음.
- 2015년 7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75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4천 명(4.9%) 증가,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184천 명으로 117천 명(0.5%)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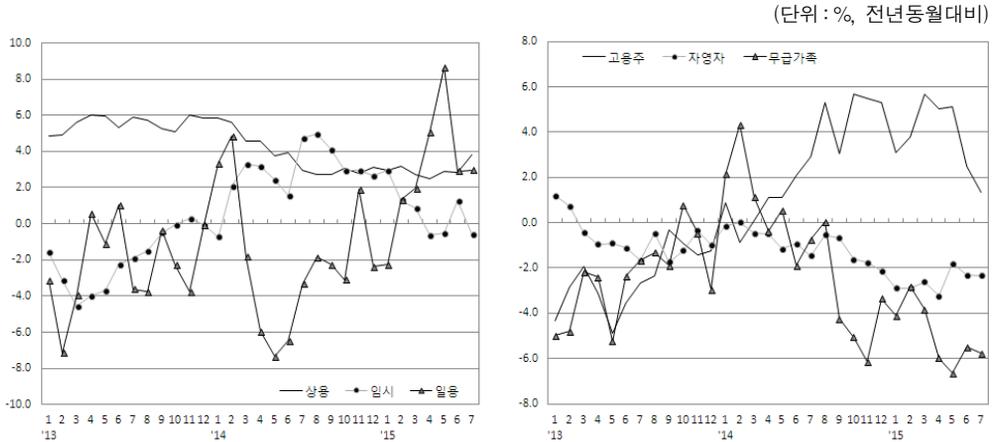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6월	7월
전 체	24,913 ( 3.0)	25,790 ( 1.8)	25,927 ( 2.0)	25,979 ( 2.0)	25,767 ( 1.7)	25,267 ( 1.4)	26,098 ( 1.2)	26,205 ( 1.3)	26,305 ( 1.3)
비임금근로자	6,597 ( 0.3)	6,984 ( -0.3)	7,047 ( 0.0)	7,033 (-0.4)	6,799 (-0.8)	6,509 (-1.3)	6,871 (-1.6)	6,889 (-1.8)	6,882 (-2.2)
자영업자	5,512 ( -0.1)	5,712 ( -0.2)	5,760 ( 0.3)	5,732 (-0.3)	5,625 ( 0.1)	5,463 (-0.9)	5,675 (-0.6)	5,669 (-1.0)	5,656 (-1.3)
무급가족종사자	1,085 ( 2.5)	1,272 ( -0.6)	1,287 (-1.7)	1,301 (-0.7)	1,175 (-4.9)	1,046 (-3.6)	1,195 (-6.1)	1,220 (-5.5)	1,226 (-5.8)
임금근로자	18,316 ( 4.0)	18,806 ( 2.6)	18,880 ( 2.8)	18,946 ( 2.9)	18,968 ( 2.6)	18,758 ( 2.4)	19,227 ( 2.2)	19,316 ( 2.4)	19,423 ( 2.5)
상용근로자	11,985 ( 5.3)	12,175 ( 4.1)	12,181 ( 2.8)	12,165 ( 3.0)	12,280 ( 3.0)	12,341 ( 3.0)	12,507 ( 2.7)	12,558 ( 2.8)	12,627 ( 3.8)
임시근로자	4,835 ( 1.5)	5,063 ( 2.4)	5,153 ( 4.6)	5,219 ( 4.7)	5,076 ( 2.9)	4,918 ( 1.7)	5,066 ( 0.1)	5,123 ( 1.3)	5,188 (-0.6)
일용근로자	1,496 ( 2.1)	1,567 ( -6.6)	1,546 (-2.5)	1,562 (-3.3)	1,612 (-1.2)	1,500 ( 0.3)	1,654 ( 5.5)	1,635 ( 2.9)	1,608 ( 3.0)
36시간 미만	3,593 (-35.4)	3,397 (-29.5)	5,229 ( 2.9)	3,578 (-1.3)	3,659 ( 7.8)	3,689 ( 2.7)	3,661 ( 7.8)	3,619 ( 6.9)	3,752 ( 4.9)
36시간 이상	20,829 ( 15.1)	22,090 ( 9.3)	20,184 ( 1.9)	22,067 ( 2.9)	21,779 ( 0.7)	21,091 ( 1.3)	22,120 ( 0.1)	22,217 ( 0.1)	22,184 ( 0.5)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5. 8), 『2015년 7월 고용동향』.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교육수준별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상승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전 체	1,031 ( 4.0)	977 ( 3.7)	884 ( 3.3)	912 ( 3.4)	854 ( 3.2)	1,089 ( 4.1)	1,042 ( 3.8)	1,050 ( 3.9)	998 ( 3.7)
15~29세	419 ( 9.8)	399 ( 9.4)	371 ( 8.6)	391 ( 8.9)	350 ( 8.3)	445 (10.3)	433 ( 9.9)	449 (10.2)	416 ( 9.4)
30~39세	187 ( 3.2)	202 ( 3.4)	181 ( 3.0)	189 ( 3.2)	164 ( 2.8)	184 ( 3.1)	195 ( 3.3)	193 ( 3.3)	173 ( 2.9)
40~49세	155 ( 2.3)	167 ( 2.4)	145 ( 2.1)	147 ( 2.2)	146 ( 2.1)	164 ( 2.4)	168 ( 2.5)	158 ( 2.3)	166 ( 2.4)
50~59세	130 ( 2.2)	140 ( 2.3)	129 ( 2.1)	126 ( 2.1)	136 ( 2.2)	157 ( 2.6)	160 ( 2.6)	170 ( 2.7)	153 ( 2.5)
60세 이상	140 ( 4.4)	69 ( 1.9)	58 ( 1.5)	59 ( 1.6)	58 ( 1.6)	139 ( 4.1)	85 ( 2.2)	81 ( 2.1)	91 ( 2.3)
중졸 이하	173 ( 3.9)	108 ( 2.3)	95 ( 2.0)	96 ( 2.0)	96 ( 2.1)	164 ( 3.9)	110 ( 2.4)	121 ( 2.6)	111 ( 2.4)
고졸	443 ( 4.3)	427 ( 4.1)	414 ( 3.9)	435 ( 4.1)	381 ( 3.6)	472 ( 4.5)	446 ( 4.2)	475 ( 4.4)	478 ( 4.4)
대졸 이상	416 ( 3.7)	442 ( 3.8)	375 ( 3.3)	381 ( 3.3)	377 ( 3.3)	453 ( 3.9)	486 ( 4.1)	454 ( 3.8)	409 ( 3.5)
취업무경험실업자	83	61	56	69	54	90	101	99	81
취업유경험실업자	948	916	827	843	800	999	941	952	917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5. 8), 『2015년 7월 고용동향』.

- 2015년 7월 중 전년동월대비 연령별 실업률은 30대(2.9%, -0.3%p)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소폭 상승함.
  -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2.4%, 0.4%p), 고졸(4.4%, 0.3%p), 대졸 이상(3.5%, 0.2%p) 등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함.
- 2015년 7월 중 전체 실업자 998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8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 명 증가,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917천 명으로 74천 명 증가함.

(조문경, 동향분석팀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5년 5월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8% 상승

- 2015년 5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04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함.
  - － 2015년 3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3,219천 원)은 정액급여(2.9%), 초과급여(9.8%), 특별급여(4.1%)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함.
  - － 상용근로자의 기본급 등이 포함된 정액급여 증가율은 2014년 3% 초반에 정체되어 있었으나 2015년 들어서서 2%대로 둔화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1,399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1.0% 상승함.
- 2015년 1~5월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 대비 3.2% 상승
  - － 2015년 1~5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46천 원으로 전년동평균 대비 3.2% 상승함.
  -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한 3,429천 원이며,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0.8% 상승한 1,410천 원임.

- 2015년 5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함.
  - 2015년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2010=100.0)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3.2% 상승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2%p 둔화된 반면 명목임금의 상승폭이 확대되어 실질임금상승률이 상승함.
  - 2015년 1~5월 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 대비 2.6% 상승함.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동평균 대비 둔화된 반면 명목임금 상승폭이 0.7%p 확대된 데 기인함.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0=100.0)

	2012	2013	2014	2015			
				1~5월 평균	5월	1~5월 평균	5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995 ( 5.3)	3,111 ( 3.9)	3,190 ( 2.5)	3,147 ( 2.5)	2,934 ( 2.0)	3,246 ( 3.2)	3,045 ( 3.8)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178 ( 5.3)	3,299 ( 3.8)	3,378 ( 2.4)	3,335 ( 2.7)	3,112 ( 2.5)	3,429 ( 3.4)
	정액급여	2,470 ( 5.5)	2,578 ( 4.4)	2,660 ( 3.2)	2,642 ( 3.3)	2,647 ( 3.3)	2,718 ( 2.9)
	초과급여	181 ( 1.0)	184 ( 1.7)	201 ( 9.3)	195 ( 8.6)	213 ( 11.9)	214 ( 9.8)
	특별급여	527 ( 5.8)	537 ( 1.8)	516 (-3.7)	497 (-2.0)	252 (-11.5)	496 (-0.2)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293 ( 6.4)	1,377 ( 6.5)	1,387 ( 0.7)	1,399 ( 1.6)	1,385 ( 0.7)	1,410 ( 0.8)	1,399 ( 1.0)
소비자물가지수	106.3 ( 2.2)	107.8 ( 1.2)	109.0 ( 1.3)	109.2 ( 1.3)	109.2 ( 1.7)	109.8 ( 0.5)	109.8 ( 0.5)
실질임금증가율	3.1	2.5	1.3	1.2	0.3	2.6	3.2

주 : 1) 1~5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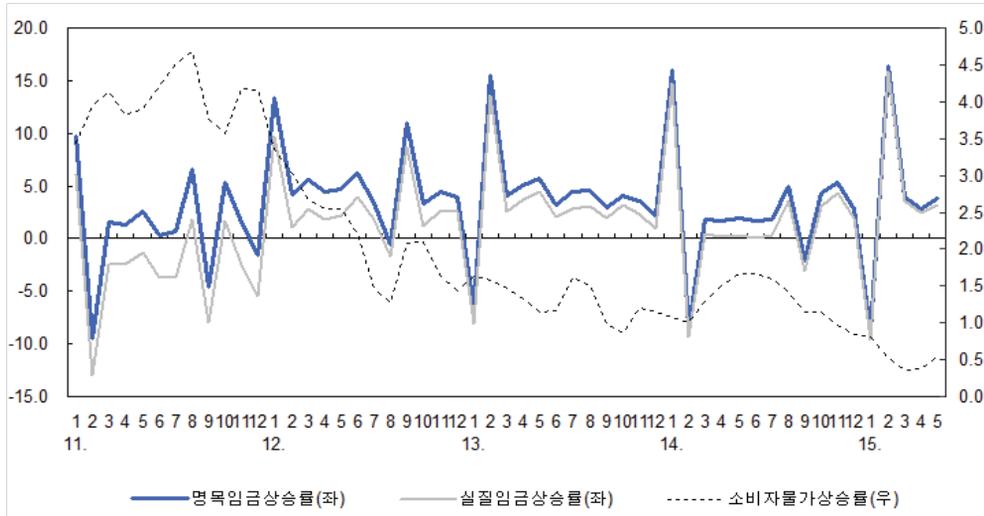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 ◆ 2015년 7월 협약임금 인상률 4.2%

- 2015년 7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2%로 2014년 7월 인상률(4.5%)보다 0.3%p 하락함.
  - 2015년 7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48.3%로 전년동월(35.3%)보다 높은 수준임.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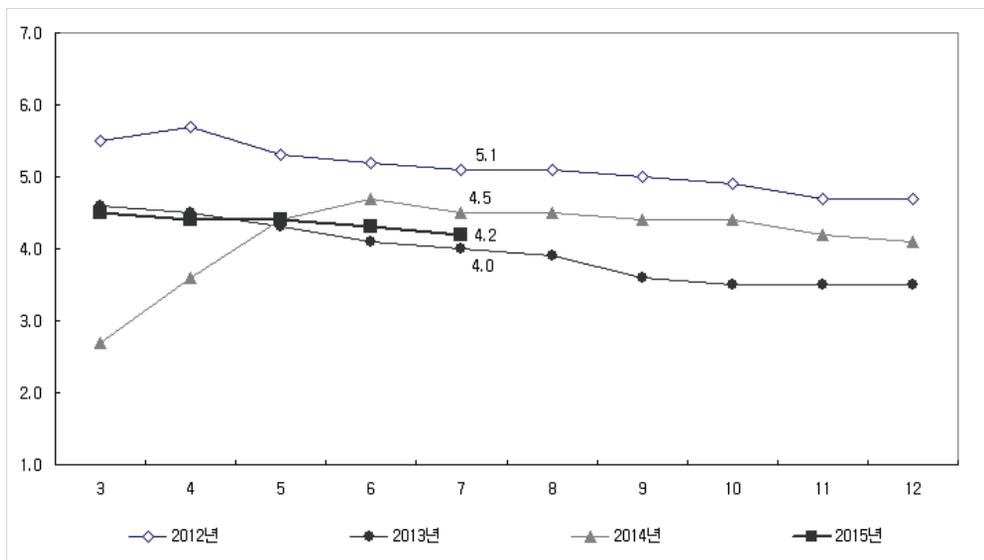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5년 5월 전 산업에서 임금 증가

○ 2015년 5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큰 산업은 운수업(2,710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4% 상승함.

- 이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6.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9%), 사업서비스업(5.7%), 광업(5.6%), 금융 및 보험업(5.4%), 건설업(5.4%) 부문이 5%가 넘는 임금상승폭을 기록함.
- 그러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한데 그쳤으며, 제조업은 4.4% 상승함.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3	2014	2015			
			1~5월 평균	5월	1~5월 평균	5월
전 산업	3,111 ( 3.9)	3,190 ( 2.5)	3,147 ( 2.5)	2,934 ( 2.0)	3,246 ( 3.2)	3,045 ( 3.8)
광업	3,557 ( 2.5)	3,480 (-2.1)	3,389 (-2.1)	3,444 (-0.5)	3,513 ( 3.3)	3,637 ( 5.6)
제조업	3,371 ( 4.7)	3,506 ( 4.0)	3,580 ( 5.1)	3,060 ( 4.3)	3,569 ( 2.7)	3,193 ( 4.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542 ( 2.9)	5,554 ( 0.2)	5,323 ( 4.0)	4,567 ( 3.2)	5,338 ( 3.2)	4,663 ( 2.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743 ( 3.3)	2,812 ( 2.5)	2,760 ( 3.0)	2,705 ( 2.6)	2,859 ( 4.0)	2,837 ( 4.9)
건설업	2,414 ( 6.2)	2,497 ( 3.4)	2,497 ( 2.0)	2,388 ( 2.2)	2,592 ( 4.7)	2,517 ( 5.4)
도매 및 소매업	3,168 ( 1.5)	3,206 ( 1.2)	3,183 ( 1.0)	2,984 ( 1.6)	3,228 ( 2.7)	3,071 ( 2.9)
운수업	2,732 ( 5.5)	2,805 ( 2.7)	2,704 ( 0.7)	2,548 ( 1.0)	2,831 ( 5.9)	2,710 ( 6.4)
숙박 및 음식점업	1,772 ( 1.9)	1,785 ( 0.7)	1,764 ( 0.3)	1,668 (-3.1)	1,807 ( 3.6)	1,744 ( 4.6)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936 ( 2.2)	3,905 (-0.8)	3,894 (-2.9)	3,798 (-1.3)	3,991 ( 3.0)	3,901 ( 2.7)
금융 및 보험업	5,058 ( 1.4)	5,234 ( 3.5)	5,306 ( 1.5)	4,945 ( 2.5)	5,563 ( 6.3)	5,211 ( 5.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69 ( 3.4)	2,323 ( 2.3)	2,311 ( 3.6)	2,231 ( 4.6)	2,442 ( 6.4)	2,366 ( 6.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243 ( 3.2)	4,419 ( 4.2)	4,350 ( 5.7)	4,150 ( 4.0)	4,290 (-0.4)	4,187 ( 0.9)
사업서비스업	1,883 ( 5.2)	1,924 ( 2.2)	1,904 ( 2.4)	1,861 ( 0.1)	1,974 ( 4.1)	1,967 ( 5.7)
교육서비스업	3,261 ( 4.4)	3,375 ( 3.5)	3,435 ( 1.4)	3,111 ( 0.5)	3,486 ( 3.6)	3,226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62 ( 2.0)	2,700 ( 1.4)	2,622 (-1.1)	2,549 (-0.6)	2,760 ( 5.8)	2,699 ( 5.9)
여가관련 서비스업	2,326 ( 5.2)	2,398 ( 3.1)	2,389 ( 3.5)	2,278 ( 7.4)	2,401 ( 1.5)	2,368 ( 3.9)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26 (-0.1)	2,249 ( 1.0)	2,206 (-1.0)	2,145 ( 2.2)	2,227 ( 1.5)	2,183 ( 1.8)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1~5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1~5월 평균 임금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0.4%)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함.
  - 2015년 1~5월 평균 임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6.4%)이며, 그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6.3%), 운수업(5.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8%)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전년동평균 대비 임금상승폭이 적었던 산업은 여가관련 서비스업(1.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5%)이며, 제조업은 전년동평균 대비 2.7% 상승함.

◆ 2015년 5월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 상용근로자 임금 상승

- 2015년 5월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했으며,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이 더 확대됨(중소규모 사업체 1.7%p, 대규모 사업체 2.2%p).
  - 2015년 5월 기준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한 2,969천 원임.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6.6% 상승한 4,253천 원임.
- 2015년 5월 대규모 사업체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0.6% 하락함.
  -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1,247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6% 하락함.
  - 반면 중소기업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1,41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함.
- 2015년 1~5월 평균 상용근로자 임금은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 상승
  - 중소기업의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3,058천 원)은 전년동평균 대비 3.7% 상승하였고,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4,969천 원)은 전년동평균 대비 5.0% 상승함.
  - 중소기업 비상용근로자의 1~5월 평균 임금은 전년동평균 대비 0.6% 상승한 1,415천 원인 반면 대규모 사업체 비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6% 상승한 1,362천 원임.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3	2014	2015			
				1~5월 평균	5월	1~5월 평균	5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299( 3.8)	3,378( 2.4)	3,335( 2.7)	3,112( 2.5)	3,429( 2.8)	3,219( 3.4)
	정액급여	2,578( 4.4)	2,660( 3.2)	2,642( 3.3)	2,647( 3.3)	2,718( 2.9)	2,723( 2.9)
	초과급여	184( 1.7)	201( 9.3)	195( 8.6)	213(11.9)	214( 9.8)	234( 9.8)
	특별급여	537( 1.8)	516(-3.7)	497(-2.0)	252(-11.5)	496(-0.2)	263( 4.1)
	비상용임금총액	1,377( 6.5)	1,387( 0.7)	1,399( 1.6)	1,385( 0.7)	1,410( 0.8)	1,399( 1.0)
5~299인	상용임금총액	2,938( 3.7)	3,008( 2.4)	2,949( 2.1)	2,869( 1.8)	3,058( 3.7)	2,969( 3.5)
	정액급여	2,433( 4.3)	2,504( 2.9)	2,487( 3.0)	2,494( 2.9)	2,561( 3.0)	2,570( 3.0)
	초과급여	160( 3.0)	172( 7.5)	167( 6.4)	181( 6.8)	180( 8.2)	197( 8.9)
	특별급여	345(-0.3)	332(-3.6)	296(-7.0)	194(-13.3)	316( 6.8)	202( 4.0)
	비상용임금총액	1,392( 7.0)	1,390(-0.1)	1,406( 1.0)	1,399( 0.4)	1,415( 0.6)	1,415( 1.1)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583( 3.6)	4,827( 5.3)	4,731( 4.6)	3,988( 4.4)	4,969( 5.0)	4,253( 6.6)
	정액급여	3,093( 4.3)	3,272( 5.8)	3,207( 4.2)	3,198( 4.8)	3,372( 5.1)	3,354( 4.9)
	초과급여	270(-1.6)	316(16.9)	300(13.9)	328(23.7)	356(18.9)	385(17.5)
	특별급여	1,220( 3.0)	1,239( 1.5)	1,224( 3.7)	463(-8.4)	1,241( 1.4)	514(11.1)
	비상용임금총액	1,219( 0.8)	1,354(11.1)	1,327( 9.8)	1,255( 5.0)	1,362( 2.6)	1,24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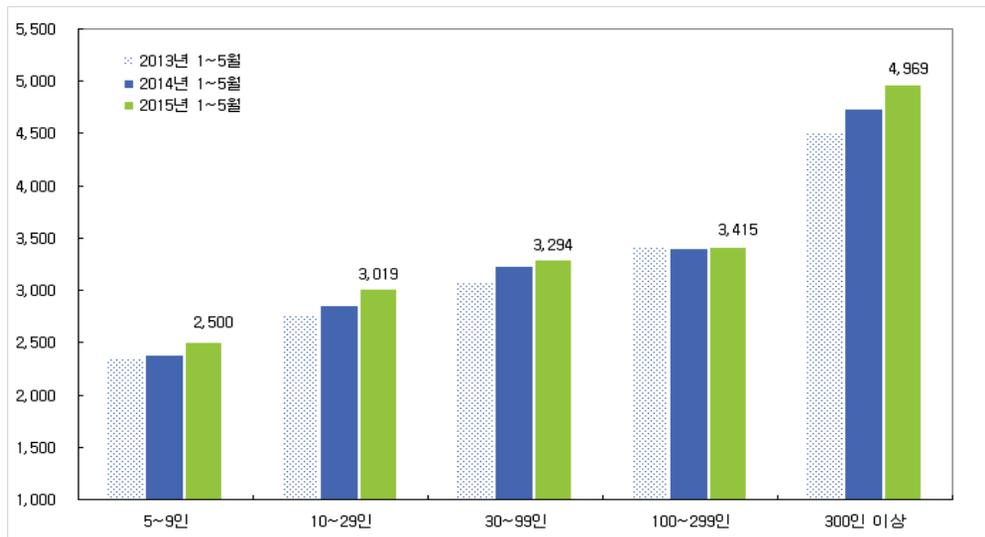
주: 1) 1~5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10〉 상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1인당 1~5월 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5월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감소(19일→18일)로 전년동월대비 3.7% 감소

- 2015년 5월 근로시간(158.6시간)은 근로일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3.7% 감소함.
  - 2015년 5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158.6시간)은 전년동월(164.7시간)에 비해 6.1시간 감소함(표 9 참조).
  -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164.0시간)과 소정실근로시간(150.0시간)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9%, 4.3% 감소한 반면 초과근로시간(14.1시간)은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함.
  -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5.7% 감소한 106.7시간임.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

	2013	2014	2015			
			1~5월 평균		5월	
			1~5월 평균	5월	1~5월 평균	5월
전체 근로시간	172.6 (-1.0)	171.4 (-0.7)	171.0 (-1.9)	164.7 (-7.3)	168.6 (-1.4)	158.6 (-3.7)
상용 총근로시간	178.1 (-1.0)	177.1 (-0.6)	176.8 (-1.4)	170.6 (-7.0)	174.1 (-1.5)	164.0 (-3.9)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5.6 (-1.0)	164.1 (-0.9)	163.9 (-2.0)	156.8 (-8.0)	161.1 (-1.7)	150.0 (-4.3)
상용 초과근로시간	12.5 (-2.3)	12.9 ( 3.2)	12.9 ( 5.7)	13.8 ( 6.2)	13.0 ( 0.8)	14.1 ( 2.2)
비상용근로시간	122.5 ( 0.2)	117 (-4.5)	117.5 (-6.2)	113.1 (-7.5)	112.9 (-3.9)	106.7 (-5.7)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1~5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1~5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 대비 1.4% 감소함.
  - 2015년 1~5월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 대비 1.4% 감소한 168.6시간임(표 9 참조). 이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감소한 데 기인함(20.4일 → 20.0일).
  - 상용근로자의 1~5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 대비 1.5% 감소한 174.1시간, 비상용근로자는 전년동평균 대비 3.9% 감소한 112.9시간으로 나타남.
- 2015년 5월 평균 근로시간은 숙박 및 음식점업(0.2%)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함.
  - 특히 금융 및 보험업(144.9시간, -5.7%)은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교육서비스업(-5.2%)과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5.2%)도 근로시간이 많이 감소함.

- 2015년 1~5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 산업에서 전년동평균 대비 감소함.
  -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3.0%)과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3.0%)으로 나타남.
  - 2015년 1~5월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88.5시간)이었으며 그 다음은 제조업(182.5시간)으로 나타남. 한편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산업은 건설업(144.2시간)으로 나타남.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3	2014	2015			
			1~5월 평균	5월	1~5월 평균	5월
전 산업	172.6(-1.0)	171.4(-0.7)	171.0(-1.9)	164.7(-7.3)	168.6(-1.4)	158.6(-3.7)
광업	180.6(-2.5)	179.4(-0.7)	179.0(-1.7)	176.9(-5.0)	175.5(-2.0)	168.4(-4.8)
제조업	185.0(-0.8)	185.4(0.2)	185.9(-0.2)	180.2(-5.4)	182.5(-1.8)	172.9(-4.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3.4(-1.2)	170.5(-1.7)	170.1(-3.0)	162.1(-9.8)	168.6(-0.9)	159.4(-1.7)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2.0(-1.5)	177.8(-2.3)	177.7(-3.1)	171.0(-8.8)	172.3(-3.0)	164.4(-3.9)
건설업	152.7( 0.1)	148.5(-2.8)	148.6(-5.0)	142.3(-8.8)	144.2(-3.0)	135.6(-4.7)
도매 및 소매업	173.4(-0.6)	172.3(-0.6)	171.7(-1.8)	165.9(-5.9)	169.2(-1.5)	159.1(-4.1)
운수업	177.8(-2.1)	173.1(-2.6)	172.6(-3.5)	168.8(-8.3)	170.4(-1.3)	163.7(-3.0)
숙박 및 음식점업	177.3(-5.0)	175.2(-1.2)	173.8(-2.0)	169.4(-9.3)	173.4(-0.2)	169.8( 0.2)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3.0(-0.5)	161.9(-0.7)	162.5(-1.2)	153.2(-8.4)	159.6(-1.8)	145.2(-5.2)
금융 및 보험업	162.7(-0.4)	163.4(0.4)	163.7(-0.5)	153.6(-7.4)	160.1(-2.2)	144.9(-5.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1.5(-1.0)	190.1(-0.7)	189.1(-2.4)	183.3(-7.7)	188.5(-0.3)	180.4(-1.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3.9(-0.8)	163.3(-0.4)	162.9(-1.6)	152.9(-9.2)	159.9(-1.8)	146.7(-4.1)
사업서비스업	172.3(-0.5)	171.9(-0.2)	171.5(-1.0)	166.1(-6.3)	168.6(-1.7)	157.9(-4.9)
교육서비스업	150.6(-0.3)	152(0.9)	153.1( 0.9)	145.3(-5.8)	148.6(-2.9)	137.7(-5.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2.0(-1.6)	169.6(-1.4)	168.4(-3.1)	163.7(-7.5)	166.7(-1.0)	156.9(-4.2)
여가관련서비스업	158.0(-0.1)	158.9(0.6)	158.1( 0.2)	155.7(-3.8)	156.4(-1.1)	151.7(-2.6)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7.5(-0.8)	162.9(-2.7)	162.5(-3.9)	156.3(-9.0)	159.5(-1.8)	152.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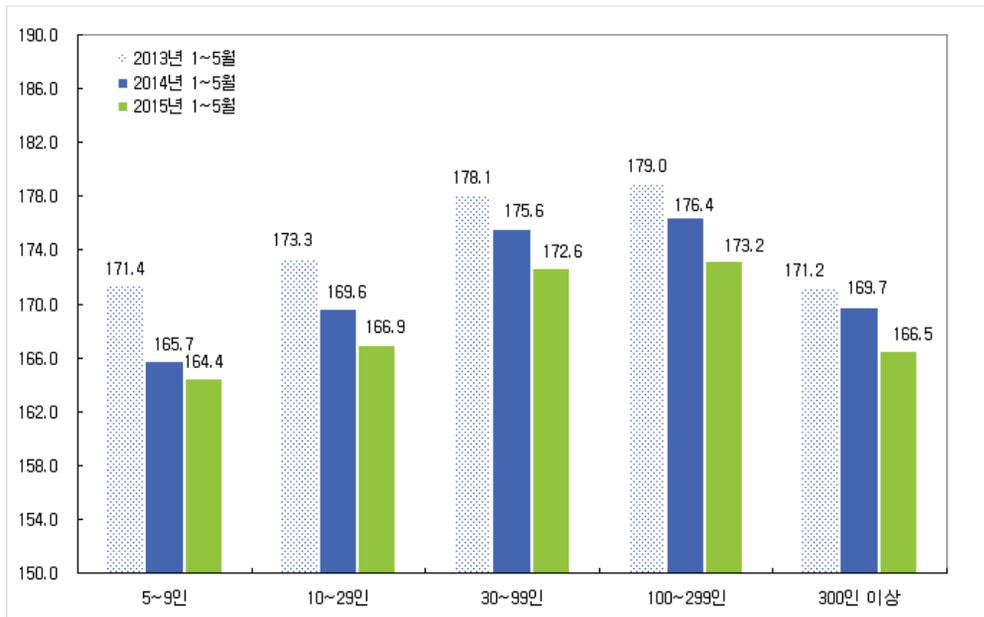
-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 2) 1~5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5월 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로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 감소함.
  - － 상용근로자가 5~299인이 중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한 155.1시간, 상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전년동월대비 4.0% 증가한 159.3시간을 기록함.
  - － 세부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4.0% 감소한 154.4시간,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6.9% 감소한 156.9시간,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4.9% 감소한 164.6시간, 100~ 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7.8% 감소한 161.9시간을 기록함.
- 2015년 1~5월 평균 근로시간은 대규모 사업체에서 감소폭이 더 큼.
  - － 평균 근로일수가 줄어들어 따라 상용근로자가 5~299인이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 대비 1.4% 감소한 169.0시간,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전년동평균 대비 1.9% 감소한 166.5시간으로 나타남.

[그림 11] 전체 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주 :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팀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7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495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7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530건)보다 35건 낮은 수치임.
- 지난 7월 조정성립률 50.0%
  - 지난 7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51.2%에 비해 1.2% 낮아진 수치임.

〈표 11〉 2014년, 2015년 7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5. 7	495	466	189	78	111	189	27	162	23	65	29	50.0
2014. 7	530	505	216	92	124	206	26	180	33	50	25	51.2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복수노조사건

- 지난 7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385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7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233건)보다 152건 높은 수치임.
  -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35.9%(129건), 기각·각하·취하비율이 64.1%(230건)를 차지함.

〈표 12〉 2014년, 2015년 7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5. 7	385	359	129	0	44	102	84	0	25
2014. 7	233	224	59	4	56	29	76	0	9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고용노동부, 대통령 담화 4대개혁 후속 조치 계획 발표

-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담화 이후 노동개혁 후속조치로 5대 핵심과제의 향후 추진계획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함.
- 5대 핵심과제로는 1)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고용기회 확대, 2)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나누기 촉진, 3)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원·하청간 격차 완화, 4) 사회안전망 확충 및 효율성 제고, 5)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립 등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청년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청년들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내 “청년고용+센터”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프로젝트」를 추진함.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함.
    - ※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정책될 수 있는 보완조치(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특별연장근로, 상한 설정 및 한시적 허용 등)를 병행함.
    - ※ 축소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 및 생산성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
  -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목표로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 등을 추진함.
  -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고, 구직자가 빠르게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함.
    -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 수준까지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현행 최소 90일에서 240일까지였던 것을 추가적으로 30일을 확대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함.
    - ※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확대 설치함.
  -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채용부터 보상, 퇴직까지 기업의 인력운용을 연공·스펙·학력 중심에서 공정한 평가에 기초한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함.

◆ **경영계와 노동계, 대통령 담화에 대한 엇갈린 입장**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통령 담화 이후,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에 공감한다면서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밝힘.
  - 보도자료에서 경총은 노동개혁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 등 기성세대가 조금씩 양보하여 우리의 미래세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데 그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곧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는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밝힘.
  - 이어서 노동개혁을 위한 논의가 재개된다면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 변경의 유연화’, ‘다양한 고용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들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고 이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힘.
- 전경련도 4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구조적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능력·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환영한다고 말함.
- 그러나 대통령 담화 이후,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히며 모든 정부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식의 방향이라며 반발함.
  - 성명에서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의 규모와 짧은 평균근속연수, 그리고 정년까지 가는 노동자비중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경직되었다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장시간 근로 해소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임금피크제에서 청년실업해법을 찾는 등 진단과 처방이 적절치 않다고 밝힘.
  - 이어서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여 대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하며,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개혁은 노사정의 갈등이 나타나는 사안으로 노동자를 이해하고 갈등을 조정하거나 해법을 담았어야 했다고 밝히고, 정부의 노동구조 개혁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사용사업체 근로감독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는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요공단의 일시·간헐적 파견 사용업체 311개소 등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1,00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음.

- 감독대상 1,008개소 중 76.5%인 771개소에서 총 1,76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6건은 과태료 부과, 228건은 영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 나머지 1,464건은 시정조치 하였다고 밝힘.

〈표 13〉 2015년 근로자파견·사용사업체 근로감독 결과

(단위: 개소, 건)

감독 업체	위반		사법처리		과태료		행정처분		시정완료		시정중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1,008	771	1,769	53	61	12	16	177	228	518	1,466	15	38

자료: 고용노동부, '15년 근로자파견 사용사업체 근로감독 결과.

-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불법파견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등 파견대상 업무 위반이 152개소 2,339명, 2)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은 무허가 파견인 형태가 38개소 1,029명, 3) 파견기간 2년을 위반한 5개소 11명으로 나타남.

〈표 14〉 적발된 불법파견 유형

(단위: 개소, 건)

계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 사용		파견대상 업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 사용		형식적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 사용		파견기간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 사용	
위반 업체	근로자 수	위반 업체	근로자 수	위반 업체	근로자 수	위반 업체	근로자 수	위반 업체	근로자 수
195	3,379	142	2,268	10	71	38	1,029	5	11

자료: 고용노동부, '15년 근로자파견 사용사업체 근로감독 결과.

-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의 77.8%(2,632명)가 주로 인천, 안산, 화성, 부천 등의 인천 경기지역에서 적발되었음.

### ◆ 주요 대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사갈등

- 청년 일자리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삼성, 현대차, SK, 한진, 금호아시아나 등 주요 대기업들이 내년 임금피크제 시행을 목표로 도입을 완료했거나 도입을 위해 노사 협상을 진행 중임.
  - 삼성그룹의 경우 2014년 1분기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계열사가 순차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고, LG그룹은 LG전자를 비롯한 전자계열사들이 2007

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현재 다른 계열사들도 모두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임.

- 이 밖에 SK그룹, 한화그룹, GS그룹 등에서도 계열사별로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목표로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하지만, 민간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측과 사측 간에 마찰도 발생함.

- 금호타이어 노사는 단체교섭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노조가 전면 파업을 벌였고,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 교섭에서 “현대자동차가 공기업보다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 ◆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을 둘러싼 서로 다른 전망

○ 정부는 고령화를 대비해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청년 고용을 위한 새 일자리도 창출돼야한다는 입장임.

- 정부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2년에 걸쳐 약 8000여 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들을 둘러싼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더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세대 간 상생을 이루는 것이 우리 경제를 견고하게 유지할 대안”이라며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함.

○ 이런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신입사원 채용률이 연관성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됨.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청년 신규 채용에 끼치는 영향분석에서 신입사원 채용률(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인원/정규직 직원 수×100)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도입하지 않은 기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 보고서는 무작위로 선출된 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5개년 동안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18 곳)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신입사원 채용률이 낮았다고 밝힘.
-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신입사원 채용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단서를 달아, 확대 해석을 경계하였음.

〈표 15〉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른 신입사원 채용률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피크제 도입기관	2.95	5.23	6.94	6.26	6.27
임금피크제 미도입기관	3.28	5.66	6.12	6.77	7.10

- 민간기업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사합의’를 전제로 하고, 임금축소에 따른 임금 절감액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부담을 해소하기에는 벽찬 수준이기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임금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SK그룹의 경우 SK텔레콤은 만 59세부터 임금을 10%씩 감소하고 SK하이닉스는 58세부터 10%씩 줄어들어 정년 60세까지 임금 축소가 적용되는 시기가 2~3년에 불과하고,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의 경우에는 이미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상태에서 아무 조건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으로는 노조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맞추어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채용에 투입하려면 50세부터는 임금을 줄여야 하는데 2~3년 정도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부담을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함.

◆ 현대자동차, 임금단체협상 노사 이견

-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최근 사측이 내놓은 ‘신임금체계 개선안’을 둘러싸고 조합원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게다가 이번 임금·단체협상에서는 통상임금 및 임금피크제 논의도 포함되어 있어 관심이 집중됨.
  - 사측 안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노동자들의 급여는 늘지 않도록 총액임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정기상여금 750% 중 450%를 기본급에 산입하고, 기본급에 산입되지 않은 나머지 300%를 부가급으로 전환해 설·추석·하기휴가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임.
  - 게다가, 기본급 확대에 따른 임금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기준 226시간에서 243시간으로 시급 산정시간 변경, △특근개선지원금 폐지, △휴일연장할증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적용(기존 최고 350%에서 150%로), △연월차 할증 축소(기존 150%에서 100%로), △2교대 전환수당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함.
  - 최근에는 현대차그룹이 내년부터 전체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미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있는 현대차의 경우 현행(만 60세에 기본급 10% 삭감)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함.

- 현대차 지부는 사측과 형식적으로 통상임금 논의와 별도로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으나, 두 협상 모두 조합원의 임금·노동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노사대립이 예상된다.
  - 지부 관계자는 “상여금의 기본급 산입에 따라 변동임금을 인상하고, 현행 단협에 명시된 임금 차등지급 금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지방노동위원회, 하이디스 지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전국금속노조 하이디스 지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고, 지회는 지노위의 결정을 규탄하며 재심을 신청할 뜻을 밝힘.
  - 하이디스는 2014년 8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나, 2015년 1월 이천공장 폐쇄와 함께 정리해고를 단행하여, 직원 377명 중 255명이 희망퇴직하고 3월 31일 79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시행함.
  - 이에 하이디스 지회는 정리해고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고, 회사의 정리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했으며, 단체협약 33조로 정한 사전 노사합의 절차 또한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접수함.
  - 소송을 대리한 노무사는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보아야 하겠으나, 과거 대법원의 콜텍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덧붙임.
    - ※ 콜텍은 2007년 물량을 해외공장으로 옮기면서 국내 공장의 직원을 해고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 악화를 겪고 장래 위기가 예상된다면 폐업 결정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결함.
  - 지회 관계자는 “특허료 수입과 영업이익을 회계상 함께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해 판단하는 것도, 단협 위반을 지적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노위 재심청구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KLI**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